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6.(수) 15:00	배포 일시	2022. 11. 16.(수) 13:30
담당 부서	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승대 (044-215-5150)
		담당자	사무관 안영환 (ynghwn@korea.kr)

최상대 2차관 「지자체 수요 맞춤형」 국유재산 매각·활용 추진

- 권역별 「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」 개최 -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.16.(수), ‘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’ Kick-off 회의를 주재하였다.
- 정부는 지난 8.8일 발표한 「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 매각·활용 활성화 방안」의 후속 조치로서,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·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‘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’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오늘 회의는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,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·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* (참고)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별개: 국가의 재산은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‘국유재산’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「공유재산법」에 따른 ‘공유재산’으로 구분

<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Kick-off 회의 개요 >

▶ 일시/장소: '22.11.16.(수) 14:00 / 나라키움여의도

▶ 참 석 자: 기획재정부 2차관(주재),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*

* ①경남 김병규 경제부지사, ②대구 이종화 경제부시장, ③제주 구만섭 행정부지사,
④전북 강승구 기초실장, ⑤경기 홍지선 도시주택실장, ⑥부산 송경주 기초실장,
⑦울산 서남교 기초실장

▶ 논의사항: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국유재산 매각·활용 관련 정책 방향 논의

- 정부는 지난 10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·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53개 단체(광역 8개, 기초 45개)가 국유재산 총 97건(재산가액 4,298억원 규모)의 수요를 제출하였다.
 -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주차장, 도로, 청사 건설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.
- 최상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,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,
 - * 금번 수요조사 결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각 요청은 총 71건, 3,163억원 규모
 -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,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임을 언급하였다.
- 한편,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
 -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·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 - * (예시) 청년창업허브: 국가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청년창업허브로 개발, 지자체가 지역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등을 운영(1호 서울시, 2호 부산시)
- 정부는 오늘 Kick-off 회의를 시작으로, 11~12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‘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’를 개최할 계획이다.
 - * ①수도권, ②강원권, ③충청권, ④전라권, ⑤경상권, ⑥제주권 등 6차례 개최 예정, 관련 지방자치단체, 기획재정부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등 참여
 - 해당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,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,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